

문화유산 맥락에서의 트롯(Trot)과 레게(Raggae) 비교 연구

김병오(전주대학교)

1. 서론
2. 레게, 자메이카의 유행가
 - 2.1. 레게의 사회적 배경
 - 2.2. 레게의 음악적 특성
3. 유행가와 무형문화유산
 - 2.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도
 - 2.2. 자메이카 유행가, 레게의 자격
 - 2.3. 한반도의 유행가, 트롯의 자격
 - 2.4. 레게와 트롯, 문화유산의 좌표
4. 결론

‘희로애락’ 혹은 ‘끈질긴 생명력’ 등으로 표상되어 온 트롯은 오래도록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다. 최근 트롯의 긍정적 측면을 살피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왜색과 유흥이라는 꼬리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며 이미 그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얼마전 자메이카의 레게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레게는 트롯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 제국의

음악언어와 피식민의 음악언어가 뒤섞여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도 불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음악이다. 그럼에도 레게는 자메이카의 자랑이자 고유한 음악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처지가 우리나라의 트롯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유산의 맥락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정신을 토대로 자메이카의 레게에 비추어 트롯의 가치를 환기해 보았다. 양자의 비교 분석을 통해 레게에게 적용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정신은 트롯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면 기존의 소모적인 왜색 논쟁으로부터 트롯을 구원하고 일국적 시야에서 벗어난 생산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심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레게, 트롯, 트로트, 왜색

1. 서론

2018년 자메이카 음악을 대표하는 레게(Reggae)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진흥의 오랜 제도적 전통을 지닌 한국에서 보기에 1960년대에 비로소 형성된 유행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은 상당히 낯설어 보인다. 음악적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관념으로 보자면 레게는 매우 활발하게 창작되고 향유되는 당대 음악이며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50년 남짓한 지극히 현대적인 음악이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대표단과 총

1) 렉시코(lexico.com), 올뮤직(allmusic.com), 브리태니커(britannica.com),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등 현행 전 세계 주요 백과사전 내 'Reggae' 항목 참조. 접속일 2021.11.14.

회로 요약되는 지구촌 시민들은 자메이카 레게를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해 주었다.²⁾

레게는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의 음악과 노예들을 수탈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서유럽권 사람들의 음악이 뒤섞여 생성된 음악이다. 본고에서 레게와 비교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한국의 트롯³⁾ 역시 식민지 상황에서 예속자와 침략자의 음악 언어가 이중으로 뒤섞여 창출된 음악이므로 역사적 문화적 변천 과정을 레게와 비교해 볼 만하다. 트롯은 레게 못지않은 오랜 역사와 대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레게와는 정반대로 ‘전통’이라는 명명을 둘러싸고 수십년 간, 비교하자면 레게가 탄생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에 소요된 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이고 지난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그곳으로부터 온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⁴⁾ 최근 트롯의 인기가 고조되면서 과거에 비해 일본풍이라는 이유로 트롯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수그

2) 자메이카 음악이나 영미권 기반의 팝 음악에 친숙한 이들이라면 레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밥말리(Bob Marley, 1945~1981)라는 음악인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레게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결정되던 당시 유네스코 총회장에서도 자메이카 대표단이 들고 있던 깃발에는 밥말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 자메이카 대표단은 목록 등재 가결 직후 밥말리가 속해 있던 그룹 웨일러스(Wailers)의 노래 ‘원러브(One Love)’를 그 자리에서 춤과 함께 제창하였는데 이 노래는 대략 반세기 전인 1965년에 새롭게 창작된 것이며 레게 선행 장르로 언급되는 스카(Ska) 형식의 노래였다.

3) 트롯은 20세기 근대화과정 속에서 일본, 한국의 민속 음악과 미국, 유럽의 다양한 음악이 혼합하여 탄생했다. 20세기 전반기 내내 춤곡의 명칭, 춤을 위한 리듬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 즈음하여 음악 장르 용어로 정착하였다. 트롯, 도롯도, 트로트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불려왔으며 그 중 트로트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트롯이라는 명명을 경유한 재유행이 일어나면서 방송가에서는 트로트 대신 트롯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트롯’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4) <왜색의 잔재는 아직도 남았다 - 민족적 반성 통감>, 조선일보, 1948.8.15. 참조.

러드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음악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 국민 감정, 역사적 감정 앞에서 트롯을 한국 고유의 문화로 품으려는 일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같은 일로 남아 있다. 1960년대 이후 트롯은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매우 포괄적인 성인용 가요의 집합체가 되었지만 일본적 정조로 비판받는 음악적 특성이 트롯 내부에 여전히 중요한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롯이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로 인정받게 된다면 정책적인 지원과 진흥도 자엽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공공의 예산이 본격적으로 트롯에게도 분배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해관계자들이 가담하는 새로운 논쟁이 더욱 격렬한 실력 투쟁으로 차원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⁵⁾ 이른바 ‘왜색’의 뿌리는 언제든지 거친 돌부리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롯의 재유행과 재조명의 시대를 맞아 트롯 논의가 왜색성 유무 논쟁으로 이끌리는 대신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주제의 장에서 생산적으로 펼쳐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의 대응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트롯에 대한 지난날의 논의가 한반도라는 일국의 역사성 혹은 한·일 양국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을 살피려 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트롯의 좌표를 우회적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5) 이미 국지적 차원에서 트롯에 대한 공적 지원은 시작되었다. 전남 영암군은 2016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규모의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사업을 수주하여 2019년 실제 개관을 단행했으며 해당 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지자체 예산 11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전남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문연다>, 아이뉴스24, 2021.8.11., <전남 영암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들어선다>, 매일경제신문, 2016.09.26. 등 참조.

201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메이카 레게는 비교 사례로서의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인들의 트롯에 대한 태도를 3자적 관점으로 환기시켜 보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의 경우 레게와 트롯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양적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어떤 관점에서든 오랜 세월동안 트롯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었다면 레게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음악적 관심이나 선호⁶⁾와는 별개로 분석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⁷⁾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본 논문은 레게에 대한 간략한 해설로부터 출발해 보고자 한다.

2. 레게, 자메이카의 유행가⁸⁾

레게의 음악적 특성은 1960년대에 형성되었고 장르 명칭으로서의 ‘레게’는 자메이카 밴드 투츠앤더메이탈스(Toots & The Maytals)가

-
- 6) 1993년 김진모의 노래 <평계>는 레게 장르를 접목한 국내 가요 가운테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노래를 계기로 가요계에 레게 붐이 일어나면서 마로니에의 <카테일 사랑>,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노이즈의 <상상속의 너> 등이 연이어 등장했고 대중의 큰 인기를 얻었다.
- 7) RISS 검색결과(검색어: 레게)를 기준으로 할 때 레게 음악을 주제로 작성된 학술논문은 황은지(2014), 김용호(2006) 단 2편에 불과하다. 학위논문도 학술논문에 중복된 황은지(2013)를 제외하면 윤영돈(2019), 성낙원(2018) 등 석사논문 2편에 불과하고 박사논문은 전무하다. 검색일: 2021.10.25.
- 8) 학술 용어로서의 유행가는 대체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라는 20세기 전반기의 특정 시대와 연관되는 경향을 띤다. 하지만 본고에서 사용할 용어로서의 유행가는 사전적 정의 그대로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는 노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를 지칭한다.

1968년에 발표한 노래 ‘두더레게(Do The Reggae)’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밥말리와 그의 밴드 웨일러스(Wailers)가 ‘원러브(One Love)’를 발표한 것이 1965년이었는데 당시만해도 특정한 음악군에 대한 장르적 명칭으로 레게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노래 ‘두더레게’가 자메이카에서 크게 히트하면서 비로소 레게라는 사회문화적 용어가 특정 음악 장르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 레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⁹⁾

2.1. 레게의 사회적 배경

자메이카는 1494년 콜럼버스의 상륙에 이은 16세기 스페인의 침략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제국의 식민지 시대를 겪어야 했다. 1655년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지배자 지위를 탈취한 이래 1962년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거의 400년 이상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제국의 약탈자들은 자메이카에 사탕수수 등의 농장을 건설하고 인신 매매와 노동착취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을 수탈하고 부를 축적했다.¹⁰⁾ 유럽 이주자들이 퍼뜨린 전염병과 강압적 노동으로 인해 자메이카 원주민들은 거의 절멸되었고 소수의 유럽인 지배자들과 노예로 끌려온 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이 자메이카 영토의 새로운 거주자가 되었다. 2021년 현재에 이르러 자메이카 총 인구는 약 300만명이 되었는데 대체로 17세기 동안 서아프리카의 현 가나공화국과 나이지

9) Jason Fine, “A Reggae King Rises Again”, Rollingstone, 2020.8.18. 참조.

10) ‘1664년 영국 정부의 주도 아래 시작된 플랜테이션 농장이 1673년경에 57개, 1755년 경에는 약 400여 개에 이르게 되는 등, 설탕산업이 자메이카를 형성해나가는 수단이자 18세기 대영제국 부의 원천이 된 것이다(Mordecai 2001,9)’, 김용호(2006; 159)에서 재인용.

리아공화국 주변으로부터 노예로 끌려온 이들이 현재 자메이카 인구 구성의 다수자로서 전체 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출신 위주의 유럽계 이민자 후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3.2%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혼혈이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도와 중국의 이민자 등이 나머지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¹¹⁾

레게음악이 형성된 공간은 현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 지역의 서부 빈민가이다. 킹스턴은 1692년에 개척된 도시로서 1872년 자메이카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자메이카의 최대 도시가 되었는데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인 94만명 정도가 킹스턴 지역에 거주 중이다. 킹스턴이 수도로 지정되기 전인 1838년에는 자메이카의 노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노예들은 개인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유노동자의 신분이 되었다. 김용호(2006, 160~161)에 의하면 19세기 말 사탕수수산업의 침체와 유럽 출신자들의 독재정치에 대한 아프리카 출신 농민들의 봉기 실패는 대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발시켰다. 특히 킹스턴의 경우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전인 1828년 35,000명 정도에 머물던 인구가 1943년에는 1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했는데 전쟁과 공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경제가 더욱 쇠퇴하고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귀국하여 킹스턴 및 외곽지역에 자리를 마련하면서 킹스턴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960년에는 38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¹²⁾ 불과 10여년 만에 도시의 인구가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레게의 구체적인 탄생 장소로 일컬어지는 자메이카 최대 도시 킹스턴 서부 지역의 트렌치타운(Trenchtown)은 이

11) 인구 통계는 World Population Review(www.worldpopulationreview.com) 자료 참조

12) Jérémie Kroubo Dagnini, Avril-Août 2018, “Kingston: A Societal Patchwork”, Études caribéennes 39-40, 10 line.

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빈민들의 집단 거주 공간이었다. 빈민가에서 별다른 전망이나 희망없이 살아야 했던 킹스턴의 청년 세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웠고 1960년대 자메이카에서는 이들에 의해 ‘루드보이(Rude Boy)’¹³⁾ 문화가 만들어졌다. 킹스턴의 하층 계급 청년들이 만들어낸 루드보이 문화는 반역과 저항 그리고 폭력의 언어를 음악에 투사했으며 루드보이 집단을 근거로 형성된 새로운 음악 문화는 레게 발생의 토대가 되었다.¹⁴⁾

2.2. 레게의 음악적 특성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레게음악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 음악적인 연원 및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음악이다. 한국의 레게 음악인인 성낙원(2018; 9)은 레게의 음악적 연원에 대해 ‘1960년대 후반 자메이카에서 스카와 록스테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음악 장르’로서 ‘미국의 재즈와 뉴올리언즈 R&B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서술하였고 미국의 대표적 음악정보 아카이브 올뮤직닷컴은 ‘독특한 자메이카의 음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뉴올리언즈의 리듬앤블루스 음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기록해 두었다.¹⁵⁾ 영문 위키백과사전은 같은 주제에 대해 ‘레게의 직접적 조상은 1960년대 자메이카의 스카와 록스테디이며 이들은 카리브 전통음악으로서의 멘토와 칼립소 그리고 미국의 재즈와 R&B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덧붙여 레게 조상으로서의 스카 역시도 미국 R&B의 강한

13) 루드보이를 한국적 맥락에서 번역하면 ‘양아치’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14) Jérémie Kroubo Dagnini(2018), 28 line.

15) 올뮤직닷컴(www.allmusic.com) ‘Reggae’ 항목 번역 인용.

영향력 하에 탄생한 것으로 서술하였다.¹⁶⁾ 레게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서술 가운데 자메이카 정부가 공적 차원에서 요약하고 발표한 것은 객관성 여부와는 별도로 레게에 대한 가장 공식적인 설명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자메이카 정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을 위해 작성한 공적 문서¹⁷⁾에 다음과 같이 레게를 정의하였는데 폭넓은 교류와 혼성에 의한 다문화적 특징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역사성이 관철되는 자메이카 고유의 유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레게음악은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유래되었다. 레게음악은 전통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초기 자메이카 스타일 음악에서 파생된 장르이다. 이후 카리브 해, 북아메리카(리듬앤블루스, 록, 재즈), 라틴아메리카의 특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적 영향이 혼합되었다. 레게에 앞서 초기 자메이카 대중음악인 “멘토(Mento)”, 1950년대 후반에 인기를 얻었던 “스카”, 뒤이어 “록스테디”가 등장했는데, 자메이카에서 탄생한 이 모든 장르는 오늘날 “레게”라고 불리는 장르가 발전하는데 뒷받침이 된 음악 스타일들이다.¹⁸⁾

레게에 대한 기존의 언급 내용을 보면 음악적 원류 최상위에 멘토(Mento)라는 초기 자메이카 유행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가 많다. 다만 중첩되고 잉태되며 파생되는 음악의 장르적 성격을 고려

16)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Reggae’ 항목 참조. 접속일 2021.10.25.

1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종목별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아카이빙 되어 있어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 출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원문 해석에 오류가 있어 필자가 원문을 참조로 일부 번역을 수정하였다. 번역문은 <https://heritage.unesco.or.kr/자메이카의-레게음악>, 원문은 레게 등재신청서 각각 참조.

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시대를 통과하면서 여러 음악 요소들이 뒤섞인 멘토라는 음악적 갈래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격화하고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몇몇 서술들에 의하면 멘토 스타일 음악의 형성 시점은 대체적으로 19세기¹⁹⁾ 혹은 19세기 후반²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는 서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프리카와 유럽의 혼성 음악이라는 측면이 주로 강조된다. 멘토의 시점에 대한 보다 흔한 서술은 19세기라는 발생 시점들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20세기 이후로 구체적인 형성 시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로 1920년대와 1940~50년대가 특정되는데 1920년대는 멘토 레코딩 음반이 등장하는 시기로 그리고 1940~50년대는 멘토가 음반을 통해 대중들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 대중화되는 전성기로 특정된다.²¹⁾ 여기서는 대중음악으로서의 멘토의 특성이 강조되며 멘토는 자메이카 대중음악의 효시처럼 다루어진다.²²⁾ 짧게 부연하자면, 멘토는 자메이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19세기 중반 이래로 일정한 음악적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여 음반산업이 성장하던 1940~1950년대에 이르러 상당한 대중적 인기에 도달하였다고 정리

19) Michael Garnice, "What is Mento Music?", www.mentomusic.com, 2018.

20)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Mento' 항목 참조. 접속일 2021.10.25.

21) "Shaping Freedom, Finding Unity - The Power Of Music Displayed In Early Mento", Jamaica Gleaner, 11 August 2013., "The rise of reggae: How a uniquely Jamaican sound conquered the world", Teach, BBC. 접속일 2021.10.25.

22) 레게의 역사성을 소개하면서 멘토를 언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멘토의 음악적 특성은 비트, 리듬, 편성 등 다양한 음악적 측면에서 레게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멘토의 경우 레게와의 연관성은 음악형식적 속성보다도 근대 매체 환경 기반에서 자메이카 대중음악의 탄생과 계승이라는 역사적 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할 수 있다.

앞서 레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음악으로 미국의 R&B가 언급된 바, 미국의 유행가가 자메이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멘토가 음반 매체의 등장을 통해 성장했던 것과 같이 근대적인 매체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1950년대 미국 뉴올리언즈 등의 남부도시에서 송출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디제이들의 R&B 라디오 방송이 레게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²³⁾ 또한 사운드시스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의 전형적인 유희문화도 자메이카 유행가 문화에 미국의 R&B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사운드시스템은 자메이카에서 성행한 일종의 야외 무도장으로서 미국의 최신 R&B음악을 앞다투어 입수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운드시스템을 운영하던 DJ들의 경쟁력이었다.²⁴⁾ 한편, 당시 자메이카에서 흔히 소비되었던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저음부의 음량이 매우 빈약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국의 R&B 음악과 달리 훗날 레게의 아주 전형적인 엷박자 기타 스트로크 어법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²⁵⁾

이처럼 레게는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음악이라기보다 20세기 근대적 대중매체를 통해 대도시로부터 탄생하고 성장한 유행가 성격의 장르이며 레코드와 라디오전파를 통해 주변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성립된 예술이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음악이기도 하다. 시간적 범위 차원에서

23) Paul Kauppila (2006) 83쪽 참조.

24) “The rise of reggae: How a uniquely Jamaican sound conquered the world”, Teach, BBC. 접속일 2021.10.25.

25) “The Origin of Upbeats in Reggae & Ska - 2017년 11월”, 유튜브 비디오, 5:15, 게시자 “Hit Song Helix”. 접속일 2021.10.25.

부연하자면 유네스코 등재일 기준으로 발생 및 전승의 기간을 대략 50년 정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의 원류로 소환되는 멘토음악으로까지 넉넉하게 시기를 확대한다 해도 길어봤자 대략 100년 범위 이내의 역사성을 지닌 음악 유산이라 하겠다.

3. 유행가와 무형문화유산

3.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도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통해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제도화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89년의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 2001년의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 선언’과 ‘문화다양성 선언’ 등의 단계를 거쳐 2003년 10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2006년 4월 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발효 시기보다 약간 앞선 2005년 2월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등재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이 그것이다.²⁶⁾ 이 중 등재 목록의 대다수²⁷⁾를 차지하고 있는 대

26)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가운데에는 ‘무형문화유산 모범 사례(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하나가 더 있다. 이는 문화유산 자체가 아닌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어서 다른 두 목록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상의 설명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ich.unesco.org) 관련 항목 참조.

27) 2021년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는 131개 국가로부터 총 584건의 목록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표목록이 총 49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 목록은 각각 67건, 25건을 기록하고 있다. <https://ich.unesco.org/en/lists> 참조. 접속일 2021.10.25.

표목록의 등재 기준을 확인하고 레게가 어떤 맥락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트롯은 해당 기준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 협약이 공식 표방하고 있는 대표목록 등재 기준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기준들을 모두 충족할 때에 목록에 등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²⁸⁾

<표 1>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기준	내용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치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 (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표 1>의 첫 번째 기준에서 적시한 바 무형유산협약 제2조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2항에 적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

2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내 문화유산 페이지에서 인용. <https://heritage.unesco.or.kr/> 유산등재/등재기준, 접속일 2021.10.25.

을 말한다.²⁹⁾ 또한 제2조 1항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³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 사실상 공동체를 통해 세대 전승이 이루어지는 문화라면 어떤 것도 문화유산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단히 포용적인 관점이다. 문화유산의 속성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두 번째에 나타나 있는데 오랜 역사성 여부는 별다른 고려 요소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가시성과 중요성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 ‘문화다양성 반영’, ‘인류의 창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어 역시나 역사성보다는 공동체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상물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가치라기보다는 향유 공동체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해석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협약의 지향이 포용으로만 일관하고 모든 가치 판단을 주관성의 영역에 머물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어긋나는 것은 협약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제2조 1항에 적시하여 불평등, 불관용, 성차별 등의 성격을 갖는 것은 협약의 대상에서 배격하고 있다.

2001년~2005년 사이에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전 단계 사업으로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이 때의 등재 기준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협약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등재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차원의 관점 및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29)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참조.

3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항목 참조.

때문이다. 2001년 5월 제1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한국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선정된 직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지했던 내용에 따르면 걸작의 선정 기준은 ‘문화적 가치 및 전통의 뿌리, 문화적 정체성, 문화간 교류 촉진,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역할, 기능 및 기술 응용의 탁월성, 독특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소멸 위기’³¹⁾ 등이었다. 영문판³²⁾ 기준을 고려해서 부연하자면 ‘걸작으로서의 탁월한 가치(outstanding value as masterpiece)’, ‘수월성에 대한 증명(proof of excellence)’,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입증(wide evidence of their roots in the cultural history)’ 등의 요소가 걸작 선정 당시의 중요 기준이었다.³³⁾ 권채리·김지현(2020: 96쪽)이 이야기하듯 ‘각각의 문화적 전통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문화적 다양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유네스코가 수용하고 보호 협약 이행 단계에서 제도의 성격과 지향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준이 탁월함(outstanding), ‘빼어남(excellence)’, ‘뿌리(root)와 역사(history)’ 등으로부터 ‘공동체성’, ‘문화간 대화’, ‘문화다양성’, ‘인류의 창조성’ 등으로 중심을 이동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경향도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협약 가입 이후로는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등이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이

31) 인용 출처는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발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5.22. 부분 강조는 인용자.

32) 다음 온라인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ich.unesco.org/en/proclamation-of-masterpieces-00103#definition-and-criteria>. 접속일 2021.10.25.

33)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과 더불어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이 걸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는 ‘결작’ 단계에서 탁월하고 빼어나고 역사적이어서 선정이 가능했던 기존의 종목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레계의 유네스코 목록 등재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등재신청서(이하 신청서) 및 기타 사례를 통해 자메이카 레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논리를 분석해보고 이어서 한반도의 트롯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서의 자격을 레계와의 비교를 통해 점검해 볼 것이다.

3.2. 자메이카 유행가, 레계의 자격

이미 레계는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가 되었으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50년 남짓의 자메이카 레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준에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메이카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를 분석해볼 것이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해당 유산의 〈장소와 범위〉, 〈정체성과 정의〉, 〈인지도 제고와 소통 독려 기여 방안〉, 〈보호 조치〉, 〈공동체의 참여와 동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이 등재의 조건이다. 시간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 조건은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등재 이전인 현재적 양상에서의 등재 자격을 따져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등재에 성공하면 등재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승 의지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트롯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전자를 중심으로 레계의 자격을 살펴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대체로 신청서 중 〈장소와 범위〉, 〈정체성 및 정의〉 항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1. 장소와 범위

레게는 2장에서 설명했듯이 서부 킹스톤이라는 뚜렷한 장소적 연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신청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³⁴⁾ 그런데 레게의 음악적 연원 시점을 멘토와 그 이상으로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킹스톤 서부로 장소를 제한하기보다는 자메이카 전역으로 장소를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메이카 전역에 산재한 유럽 지배자들 소유의 자메이카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인들의 혼성적 음악 실천으로부터 레게의 음악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의 방향에서 오늘날의 시점으로 레게를 당겨올 경우에도 레게가 재현되고 전승되는 장소와 범위는 또다시, 훨씬 더 넓어진다. 신청서에서도 레게의 장소성은 자메이카 전역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카리브해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으로도 확장된 모습이다. 킹스톤을 넘어선 이 세상 곳곳에서 상당한 규모로 레게가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런데 매사냥(Falconry)처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에 18개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네스코 협약은 레게의 재현 및 전승 장소가 범세계적으로 확장된다고 해서 지역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광범위한 장소 범위의 설정은 전통의 뿌리를 모호하게 하고 해당 유산의 향토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협약의 정신은 그것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전승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등재기준에 제시된 것처럼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시성’과 ‘인지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고 ‘문화간 대화’를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켜 ‘인류의 창의성 고양’에 기여할

34) 신청서 2쪽, ‘Geographical location and range of the element’ 항목 참조.

35) 같은 곳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네스코는 2008년 보호협약에 대한 운영 지침을 채택하면서 19조 항목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화를 지향함으로써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을 나타낸다.’고 적시했다.³⁶⁾ 문화간 대화, 문화다양성, 인류의 창의성으로 연쇄되는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기에 장소성의 확장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협약의 정신에 가깝다. 따라서 목록 등재를 위해 요구되는 장소성은 고유한 장소의 특징이 등재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해당 유산의 장소성이 등재를 제안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적 가치와 어떻게 합리적으로 호응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라는 요청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3.2.2. 정체성 및 정의

레게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역사성, 사회성, 창의성, 공동체성 등 다양한 성격의 귀납적 총합으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범위 또한 제한이 없을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이론적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제도화 실행의 관점이라면 정의의 무제한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제도는 신청서 양식을 배포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합한 정체성의 구체적 항목들을 미리 특정해 두고 해당 항목마다의 요구사항 혹은 작성요령을 부기해 두었다. 신청서에서 <정체성 및 정의> 작성 항목 내에 부기된 요구사항 가운데 구체적 설득력을 갖춘 내용 제시가 필요해 보이는 항목을 본 연구자

36)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운영 지침 (국문번역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가 임의적으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단락은 현재 존재하는 요소의 모든 중요한 기능을 다루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오늘날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설명
 - 해당 유산의 보유자와 전승자의 특성
 - 해당 유산 관련 지식 및 기술의 당대적 전승 방법
- 해당 유산의 역사, 기원, 유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³⁷⁾

레게의 신청서 역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하에서는 발췌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레게의 정체성 및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2장에서 레게의 특성을 서술한 바 있으므로 본 단락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발췌 항목 위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레게는 유네스코의 등재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특별히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도록 한다.

●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의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레게에는 사회 참여적인 음악이 매우 많다. 신청서는 자메이카의 레게가 ‘불의에 대한 저항, 사랑과 인류애라는 국제적인 담론에 기여’했기 때문에 ‘지적이고 사회정치적이며 동시에 관능적이면서도 영적이라는 역동적 특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처럼 공동체를 결속하고 대변하는 사회적 역할은 과거로부터 지금

37) 신청서 양식 내 관련항목 인용. 국문 번역 및 어구 강조는 필자.

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탄생과 죽음의 풍습, 요리, 가족구조, 종교 등의 전통’과 레게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레게의 내용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체계를 전달하고 강화한다’고도 하였다. 레게가 가진 장르적 특징으로서의 응답송³⁸⁾ 형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위나 성별, 언어와 무관하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공동체적 가치를 부여해 두었다.³⁹⁾

● 보유자와 전승자

레게는 전승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화유산이다. 레게는 오늘날에도 자메이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재현되고 변주되는 음악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자메이카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공연단과 레게 밴드들이 ‘1년 내내 호텔이나 사회 행사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대형 레게 페스티벌이 열리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레게를 익히고 있다. 해외에서도 레게의 대중성은 상당히 커져서 카리브해 인근은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권역에서 레게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릴 정도이다.⁴⁰⁾ 산업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38) 가창자들 간에 메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를 말한다.

39) 신청서 4쪽 참조 및 인용. 한편, 유네스코 국가간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레게는 음악 공동체와 자메이카 사회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레게는 자메이카에 거주하는 다수 민중과 집단의 공유된 역사를 구현하고 그들의 신념 체계, 희망, 열망에 대한 창의적 표현을 제공하며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Deci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13.COM 10.B.18>(ich.unesco.org/en/decisions/13.COM/10.B.18) 인용 및 참조. 번역은 필자.

40)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List of reggae festivals’ 항목 참조. 한국에서도 2013년 이래로 <Rise Again, Seoul>이라는 레게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축제 SNS계정 참조. www.facebook.com/reggaeriseagain

레게는 높은 대중성과 안정적인 전승 생태계가 확인된다. 일반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에서 음악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⁴¹⁾의 사례를 보자면 앨범 분야에서 레게는 시장 점유율 1%를 기록하고 있다. 서양고전음악 전체 시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일 통계에서 1.1%를 기록하고 있는 재즈 음악 전체 시장 규모에 육박하였다.⁴²⁾ 자메이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038%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레게의 존재감 및 전승 생태계의 안정성은 대단히 탄탄한 것이라 하겠다.⁴³⁾ 상황이 이러하므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과 다르게 레게 음악의 보유자 혹은 전승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신청서에도 보유자 및 전승자에 대해 결국은 ‘민족과 종교, 인종, 성별을 불문한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면서 국경을 넘어설만큼 광대하고 매우 포괄적인 대상을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유네스코의 관점에서 보유자나 전승자를 특정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해도 괜찮고 안해도 무방한 문화유산의 개별적 특성에 종속된 하나의 옵션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당대적 전승 현황

앞 단락을 통해 레게의 보유자 혹은 전승자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신청서 양식은 보유자,

41) 미국의 세계 음악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35.4%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것이다. 『2016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363쪽 참조.

42) “Share of total music album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in 2018, by genre”, www.statista.com 참조. 접속일 2021.10.25.

43) 2021년 현재 전세계 인구는 약 79억 명이고 자메이카 인구는 약 300만 명이다. 인구 수 출처는 웹사이트 www.worldometers.info. 접속일 2021.10.25.

전승자에 이어서 전승의 양상 혹은 현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한다. 자메이카는 이에 대해 신청서에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자메이카의 모든 사람들이 레게음악을 즐기고 있다는 설명이고 두 번째로는 세대 간 전승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세 번째는 공식적인 레게 교육 기관을 열거하였고 마지막은 레게의 경험과 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벤트로서 레게 축제의 시공간을 제시하였다.⁴⁴⁾ 여기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상 앞 단락과의 중복적인 내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번째인데 세대 간 전승 사례를 입증하기 위해 말리(Marley), 토시(Tosh), 모건(Morgan) 등 자메이카의 유명한 레게 음악 가족들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자메이카 레게를 개척한 대표적 음악인들로서 밥말리와 피터토시(Peter Tosh, 1944~1987)는 웨일러스(Wailers)의 동료였고 덴로이모건(Denroy Morgan, 1946~)은 비슷한 시기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한 음악이이다. 생존해 있다면 다들 70대 노인인 바, 짧으면 한 차례 길면 두 차례의 세대 전승이 가능한 조건이다. 실제로 이들의 가족 중 3대에 걸쳐 음악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자메이카는 이들의 존재를 전승 사례로서 제시한 것이다. 밥말리의 경우 그의 큰 손자가 가수로 데뷔한 것이 2009년인데 전술했듯이 밥말리의 데뷔 연도가 1962년이니 이들 3세대 간의 전승 시간차는 불과 47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짧은 전승 기간에도 불구하고 레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무리 없이 등재가 되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결격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다.⁴⁵⁾

44) 신청서 5쪽 “1-(iii) How are the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the element transmitted today?” 항목 참조

45) 신청서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밥말리 자녀들은 11명 중 다수가 레게 음악인으로 가업을 이었고 3대로 넘어가 손자 세대에서도 2009년 데뷔한

3.3. 한반도의 유행가, 트롯의 자격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가장 한국적인 대중음악장르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트로트”⁴⁶⁾

3.3.1. 트롯의 의미, 변화하는 정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든 국가문화재단 시도등록문화재단 우리가 만일 어딘가에 트롯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한다면 제도의 특성상 대상의 간략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트롯을 주제로 소통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롯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트롯이라 불리는 음악과 트롯이란 명칭이 발생한 시기 자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트롯은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변용되고 확장되는 개념이라 그렇다. 그러나 문화유산이라는 제도와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든 대상을 잠정적이거나 정의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 트롯의 정의 혹은 개념이 문화유산이라는 맥락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이 트롯에 대해 그동안 제시한 몇 가지 해설은 다음과 같다. 과거 이영미(2008; 34, 61)는 ‘1960년대부터 앵카풍의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1950년대부터 트로트와 팝은 뒤섞이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트로트라고

밤바타말리(Bambaata Marley, 1989~) 등 가업을 잇는 후대 음악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덴로이모건 자녀들은 모건헤리티지(Morgan Heritage)라는 5인조 음악그룹을 만들어 1994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피터토시 자녀들 역시 음악 활동이나 선대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 등으로 레게를 전승해 왔다.

46) <정치권 위기의 ‘트로트’ 구하러 나선다>, 국민일보, 2016.9.19.에서 인용하였다. 트롯을 묘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구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절(節)의 서두에 배치하였다.

분류되는 노래들 중 태반은, 만약 1960년대에 발표되었다면 트로트가 아니라 팝으로 분류되었을 노래'라고 설명하였다. 요약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유행한 일본 유행가풍의 노래가 그 기원이며 장르 명칭은 1960년대에 비로소 적용되었고 현재는 엔카풍으로 규정할 수 없는 범용한 올드팝이 트로트라는 것이다.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장유정(2008; 49)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오늘날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트로트라는 용어는 광복 이후에 리듬명으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에는 갈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준희(2015; 77~78)의 경우는 독특한 일본식 5음 단음계, 약간 빠른 템포의 2박자, 신파적 경향이 짙은 노랫말, 기교적인 잔가락을 구사하는 가창 등으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초기 트롯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했는데 이어서 시대에 따른 단계적 확장을 추가로 언급하며 장르적 해체라는 언급에까지 이르렀다. 트롯의 정의에 접근하는 또 다른 연구자인 손민정(2013; 61~62)은 기존 논의의 흐름과는 결이 다른 맥락을 설정하면서 트롯에 대한 연구자 중심의 지식과 논쟁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트롯의 실체적 의미를 추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끌어올려 트롯의 의미 기준을 공동체의 주체들에게로 귀속시키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음악 장르로서의 트롯은 용어가 정착된 1960년대 이래로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시하는 내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대략 10년 혹은 20년 정도의 단위로 포괄 대상의 변화 양상을 구획해볼 수 있을텐데 그것의 방향성은 대체로 수용하고 확장하는 방향이다. 과거에 트롯이었던 것은 현재에도 트롯으로 유지되며 트롯이 아니었던 신생 음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트롯의 영역으로 합류하면서 범주가 넓어진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트

롯과 분별하지 않고 있는 신민요는 1960년대 이후 트롯의 자장 속으로 가장 먼저 흡수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가령 아리랑을 후렴구 형식으로 차용하고 있는 이애란의 〈백세인생〉이나 ‘시라파미’ 혹은 ‘라파미’ 식의 하향 선율을 단 한차례도 등장시키지 않는 윤수현의 〈천태만상〉 등은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할때 고전적 의미의 트롯보다는 신민요의 양식을 따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래에 대해 신민요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매체와 사람들은 이들을 트롯으로 호명하고 있다.⁴⁷⁾ 장르적 차원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신민요였으나 지금은 트롯이다. 트롯의 개념은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귀납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트롯의 정의 방식을 음악과 향유자 간 상관관계로 가져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가 계속 유동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의미로 ‘성인가요’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⁴⁸⁾ 성인가요는 현 시점 기준으로 성인⁴⁹⁾들이 듣는 음악이며 향후 전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젊은

47) <윤수현, ‘천태만상’ 트로트 대세>, 문화방송, 2020.7.8., <‘아침마당’ 김종완 “‘백세인생’은 트로트 아닌 민요였다”>, 톱스타뉴스, 2017.10.24., <트로트가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교수신문, 2021.3.4. 등 참조.

48) 성인가요 관련하여 국내 대표 음악서비스 멜론의 경우는 장르 구분에서 ‘트로트’를 제시하면서도 트롯 가수로 알려져 있는 이들의 개인 신상에서는 ‘트로트’ 표식을 제거하고 ‘성인가요’로 활동 장르를 정의한다. 벅스뮤직의 경우는 장르 명칭에 트로트 대신 성인가요를 배치하고 성인가요의 서브장르에 성인발라드, 트로트 등을 정의해 두었다. 한편, 다른 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장르 배치나 범주 구분, 대표 명칭 등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이를 개념 정립이 덜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관철되는 경향은 과거에 성인가요로 간주되지 않던 음악인들 상당수가 활동 연대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차례차례 성인가요의 범주로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49) 사전적 의미에서의 성인은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인가요 맥락에서 성인의 의미는 그보다 좀더 윗세대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세대들 중 상당수가 30~40년 후에 듣게 될 음악이기도 하다. 트롯과 성인가요의 연관성 혹은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참고 차원에서 기성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간단하게 사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기준으로 구글트렌드⁵⁰⁾는 성인가요를 검색어로 질의했을 때 ‘트로트’를 첫 번째 관련어로 제시하였으며 그 역은 관철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자 검색⁵¹⁾에서는 성인가요 주제어의 하위어로 트로트 단일 주제어를, 트로트의 상위주제어로는 대중가요와 성인가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트로트 주제어는 관련어로 어덜트컨템포러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성인가요의 번역어에 가깝다. 이들을 조합해보면 성인가요는 트로트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장르이며 트로트보다는 조금 확장된 범위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4월 아제이칼리아(Ajay Kalia, 2015)는 세계최대의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스포티파이의 데이터를 기초로 대개의 사람들은 33살이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청취자들이 10대 초반 새로운 음악을 열렬하게 발굴하고 향유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미 인기가 사라진 그때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연구의 요점이다. 자신의 음악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성인가요가 되어버린 그때 그 음악을 듣는다는 말인데, 이 연구의 내용을 수용한다면 트롯은 한국적 맥락에서 성인들이 도착하는 음악적 고향의 총집합을 추상화한 것이라 비유할 만하다. 한 세기를 넘어 음악적 실천이

50) 구글트렌드(trends.google.co.kr)는 구글 제공의 검색어 동향 서비스이다.

51) 국가전자 검색(librarian.nl.go.kr)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서지원 서비스이다.

반복 전승되는 동안 과거의 음악들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 혹은 취향 공동체와 함께 트롯의 이름으로 겹겹이 누적되어 간다. 그러는 가운데 <목포의눈물>, <돌아와요 부산항에>, <애모> 등 오래도록 사랑받는 고전(古典)도 탄생한다. 달리 말하자면 음악과 향유자 관계의 누적을 통한 유산화⁵²⁾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데 다만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자리에는 일제 강점기 유행가와 신민요가 자리잡고 있는 바,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일본풍의 선법과 창법은 트롯이 고유한 한국 문화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데에 오늘날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3.3.2. 장소와 범위

이준희(2015; 76)는 트롯에 대해 ‘음악적 골간은 1920~3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거의 그대로 한국 대중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수용한다면 트롯의 장소적 기원에 대해 우리는 일본의 어느 지역을 특정해야 할 것만 같다. 그런데 트롯뿐만 아니라 엔카 역시 음악 장르의 명칭으로 자리잡은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한국이나 일본 양국 모두 당시에는 해당 음악을 유행가 등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뒤늦게 성립된 명칭을 소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⁵³⁾ 따라서 트롯을 신민요와 함께 일제강

52)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에 대해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인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내 세계유산(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세계유산소개) 소개 항목 참조. 접속일 2021.10.25.

53)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孝行, 2018) 9~11쪽 참조. 메이지시대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구에 회자된 음악 용어로서의 엔카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輪島裕介(와지마유키, 2011) 참조.

점기를 품미했던 유행가 양식으로 그 의미를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유행가가 자리잡은 후로부터 100년에 육박하는 시기를 거쳐 현재 트롯으로 정착된 특정 경향의 유행가 전체를 트롯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일차적으로 장소적 연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서는 작성 지침에 ‘해당 유산의 역사, 기원, 유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적시하였다.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서도 공동체의 주체적 전승 활동,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자연 및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끊임없는 재창조 등의 가치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요소를 갖춘 것들을 등재 목록에 올리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트롯의 장소성은 단순히 그것이 최초로 출현했거나 특정 인물이 정주했던 어느 장소가 아니라 트롯을 향유하는 공동체의 거점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공동체에 의해 향유되고 전승되어 온 한 세기의 사회 문화적 과정을 보편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기준에 보다 잘 합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레게와 트롯처럼 근대사회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등장한 문화유산은 깊은 향토성 및 전통성을 지닌 문화유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장소성을 갖는다. 그것을 만들고 향유하는 공동체 사회가 대중매체가 도달하는 곳 전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트롯 장소성의 초기 대상을 경성이나 부산, 목포 등 일제강점기의 주요 도시로 수렴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해 일국성을 관철해 나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온 나라 전체를 향해 확장하는 것으로 장소성을 정의한다면 레게와 마찬가지로 트롯 역시 유네스코 협약이 지향하는 문화유산의 기준에 충분히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3.3.3. 정체성 및 정의

●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의미

트롯은 20세기 굴곡 많았던 한국의 근현대사와 밀착되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해왔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희노애락이라는 트롯의 수식어를 자주 만날 수 있다.⁵⁴⁾ 한국의 근현대사는 식민지, 전쟁, 급격한 개발 등으로 표상될 수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수많은 이주와 이별을 유발했다. 사람들은 항구와 정거장에서 매일 같이 이별의 정을 나누었고 상처 입은 마음은 이별을 달래는 그리움의 노래로 정화시켰다.

트롯은 강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텍스트 내적으로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투영하여 공동체 상호간에 위로하고 의지하게 해주었다. <타향살이>, <이별의 부산정거장>, <단장의 미아리고개> 등 슬픈 노래 가사에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가 개인적 경험으로 녹아들고 공감을 자아내 공동체의 마음을 위무해 주었다. 텍스트 외적 차원에서도 트롯의 공동체적 기여는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다. 한반도 분단 이전에 공유했던 트롯은 물리적으로 단절된 남과 북 주민 간 동질성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면 2018년 개최된 남북합동공연에서 북측은 삼지연관현악단을 통해 <눈물젖은 두만강>, <찢레꽃>, <아리랑 고개>, <낙화유수> 등을 연주하였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다. 트롯은 해외동포들이 한인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확보하고 한인 네트워크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가령 사할린의 한인들은 라디오를 통해 익힌 1960~70년

54) 2018년에는 ‘희노애락’이라는 트롯 전문 아이돌그룹이 데뷔하기도 했다. 위키백과사전(ko.wikipedia.org) ‘삼총사(음악 그룹)’ 항목 참조. 접속일 2021.10.25.

대 트롯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공동체성과 소속감을 지켜나갔다.⁵⁵⁾ 또한 야유회에서 운동회까지, 고교야구에서 프로야구에 이르기까지 트롯은 중요한 순간마다 응원가로 사용되어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⁵⁶⁾

서구음악과 일본음악 그리고 한국음악이 뒤섞여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는 트롯은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차원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21세기에도 젊은 음악인들은 자기 세대에 적합하게 트롯 재현을 지속해 왔는데 기존의 어법을 반복하는 이들 외에도 슈퍼주니어-T⁵⁷⁾, 빅뱅의 대성, 소녀시대 등 아이돌 출신들이 트롯을 차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러한 트롯 실천은 세대 간 통합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세대를 아우른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⁵⁸⁾ 특히나 사회적 갈등지수가 유독 높아 늘 OECD 최상위권에 속하고 마는 한국에서 트롯이 가진 세대 화합의 메시지는 공동체적 가치 평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⁵⁹⁾

한편, 1990년대 말 신바람이박사는 일본에서 음반 발매와 더불어 그곳의 전위적 예술가들과 협업을 진행했고 최근 TV를 통해 방영된

55) 조일동(2021) 220~224쪽 참조.

56) 기아타이거즈는 <남행열차>, <목포의 눈물>, 롯데자이언트는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인천을 연고로 하는 SSG랜더스는 <연안부두> 등을 응원가로 사용해왔다. 이상의 내용은 <지금은 야구 시즌! 야구 응원가 특집>, IZM, 2015년 5월 참조.

57) 아이돌그룹인 슈퍼주니어의 유닛으로서 이니셜 T는 트롯을 의미한다.

58)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열풍’>, KBS, 2009.3.11., <‘복면가왕’ 전 세대·장르를 아우른 ‘트로트 종합선물세트’>, 스포츠서울, 2016.02.07. 등 참조.

59) <한국 ‘갈등 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 인구밀집도는 심각>, 한겨레, 2021.8.19., <이념·세대·성 대결 갈수록 심각... 갈등 해소 ‘공론의 장’ 절실>, 세계일보, 2020.2.2. 등 참조.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은 트롯과 다른 여러 음악적 장르와의 크로스 오버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리고 <눈물 젖은 두만강(1938)>, <돌아와요 부산항에(1970, 1976)>⁶⁰⁾ 등에 이어 최근에는 트롯과 록을 결합한 노라조의 노래 <카레>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도 수록되기까지 하였던 바, 한국의 트롯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기본 조건으로 설정된 공동체의 창의성 증진에도 나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 보유자와 전승자

레게와 마찬가지로 트롯 역시 전승의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음악이다. 2019년과 2020년의 방송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1,2>와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열풍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트롯의 전승자가 되길 원하고 있다. 몇몇 보도에 의하면 <내일은 미스트롯2>의 경우 예심 참가자가 7천명 수준⁶¹⁾,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경우 예심 참가자가 1만5천명 수준⁶²⁾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양적 사례가 시사하듯 트롯의 전승은 대규모 경쟁에서의 탈락을 걱정하는 곳이지 소멸을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끈질긴 생명력’이 트롯을 표현하는 대표 문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질적 차원에서도 트롯의 자율적이고 강력한 전승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별도의 보유자나 전승자를 특정해서 보호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유네스코 차원에서 문화유

60) 가수 김해일이 1970년에 발표하였으나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했다가 1976년 조용필이 바뀐 가사로 리메이크해서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28) 노래 한 곡이 부산을 빛낸다>, 국제신문, 2021.7.4. 참조.

61) <‘미스트롯2’ 지원자 수 조작 인정.. 진상위 “법정제재 촉구”>, 스포츠경향, 2021.10.1. 참조.

62) <‘미스터트롯’ 내년 1월 2일 첫방... 1만5000대 1 경쟁률 뚫은 101명 티저 공개>, 한국경제신문, 2019.12.2. 참조.

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자와 전승자 항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청서의 보유자 및 전승자 항목은 그간 한국에서 기·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등으로 통용되어 왔던 것과 같이 어떤 유산의 보유자나 전승자를 특정하여 서술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레계 항목에서도 설명했듯이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보유자 및 전승자 지정은 해당 유산의 개별적 특성에 종속된 하나의 선택사항일 따름이다. 이는 2012년의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2013년의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2016년의 ‘제주해녀문화’, 2018년의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등 보유자와 전승자를 특정하지 않은 한국의 최근 등재목록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체 중심의 유산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선정 기준에 부응하고자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경쟁이 국내외로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 공동체의 다수가 참여하고 활발하게 전승해 온 종목이 대표목록 등재에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⁶³⁾

무형유산보호협약 가입 이후 한국의 법령도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63) 한국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항목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2008)’, ‘판소리(2003/2008)’, ‘강릉단오제(2005/2008)’,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 영등굿(2009)’ 등 비교적 좁은 범위의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는 것들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연등회(2020)’, ‘씨름(2018)’, ‘제주해녀문화(2016)’, ‘줄다리기(2015)’, ‘농악(2014)’, ‘김장문화(2013)’, ‘아리랑(2012)’ 등 전국적으로 다수의 공동체 혹은 전 국민적으로 전승되는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왔던 관습과는 판이한 것이다. 참고로 유산 명칭은 지면을 고려하여 약칭으로 표기하였다.

제정되었다. 이후 1970년 5차 개정을 통해 보유자 인정을 의무화하였고 1982년 7차 개정을 통해서는 보유자의 의무지정에 보유단체를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 이후인 2014년 보유자 의무 지정제도 도입 후 44년만에 의무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해 두었고 이는 무형문화재 신법 제17조 1항에 그대로 계승되어 이제는 보유자 없이도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⁶⁴⁾⁶⁵⁾ 덕분에 영화주제가로 출발한 일종의 신민요로서의 〈아리랑〉은 20세기 이래 스스로 입증해 온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로 편입되지 못했으나 협약 이행의 맥락에서 국내법으로 도입된 보유자 지정 의무화 예외규정을 통해 2015년에 비로소 국가무형문화재의 일원이 되었다.⁶⁶⁾

한편,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의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는 보유자 항목의 서술을 ‘아리랑은 한민족이 보편적으로 애창하는 곡이다.’로 시작하였다. 또다른 등재 유산인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의 같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모든 한국인은 김장을 한다.’로 시작하

64) 시간 순으로 각각 1970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8조 2항, 1982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5조, 2014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 2항, 무형문화재신법 17조 2항 참조.

65) 보유자 예외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제주해녀문화’ 등은 유네스코 목록 등재 이후 국내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등재되는 역주행이 이루어졌다. 순서에 따라 2012년에서 2015년, 2013년에서 2017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각각 역주행이 이루어졌다. 앞의 연도가 유네스코 등재 연도, 뒤의 연도가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연도이다.

66) 20세기 상업민요(권도희; 2014, 167쪽 참조) 가운데 잡가가 국가무형문화재제도로 1차 포괄된 데 이어 신민요가 2차로 진입을 한 셈이다. 트롯의 경우는 오늘날 신민요의 장르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미 일부가 진입한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고 3차 진입의 잠재적 후보자로 간주할수도 있을 것이다.

였다. 같은 수준과 맥락이라면 트롯 역시 ‘한국인은 보편적으로 트롯을 즐긴다.’라고 설명을 시작해도 무방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보유자 및 등재자에 대한 기본 자격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당대적 전승 현황

트롯은 식민지 시대 이래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며 전승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트롯을 향유하고 있다. 정체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전승을 지속해왔다. 그때 전승되는 것은 과거의 원형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응하고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트롯의 음악적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트롯의 시계열적 변화상을 살펴온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온 트롯의 전승 양상을 분석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트롯은 최근 들어 매체를 통해 자연스러운 전승 환경을 대대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민영방송사인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롯>,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비롯해서 KBS, MBC, SBS 등의 공중파에서도 오디션 형식을 내세운 트롯 프로그램들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거기에 더해 KBS의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등의 장수 프로그램과 MBC 지역네트워크의 <가요베스트>, SBS 지역네트워크의 <전국 탑10 가요쇼> 등이 안방으로 트롯을 송출해 왔다. 특히 비전문가들을 위한 무대로서 KBS <전국노래자랑>은 한국 트롯 세대 전승의 산실로 기능해 왔다.⁶⁷⁾

67) <‘전국노래자랑’이 배출한 스타들>, KBS, 2017.1.26., <송혜 “임영웅, 이찬원, 송

여기에 더해 아이넷TV와 같은 트롯 전용 채널도 있는 바 트롯 문화를 상시적으로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하겠다. 또한 지역 축제 등 전국 지자체가 개최하는 다양한 공동체 행사에서 트롯 가수들은 섭외 1순위이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트롯을 익히고 재현할 수 있다.

향유공동체를 위한 트롯 전승 교육이 가장 폭넓게 이루어지는 곳은 전국에 산재한 노래교실이다. 노래교실은 지자체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 복지관, 농협, 마트, 백화점 문화센터 등이 주요한 활동무대인 것으로 보이며 관계자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강사 협회 한 곳에 소속된 노래 강사만 대략 3,700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하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숫자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⁸⁾ 개별 지자체에서 노래교실 성과를 연인원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숫자가 많은 경우 2만 명도 드물지 않고⁶⁹⁾ 성정숙(2016; 34쪽)에 의하면 노래교실의 ‘회비가 무료이거나 소액인 경우 회차별 수강 인원이 500~600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의 수강생 수 추정이 아주 과장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정숙(2016; 78~79쪽)의 조사에 의하면 노래교실에서 트롯만 부르는 것은 아니나 수강생 대부분이 성인가요 중심의 노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성인가요 중에서도 다수가 트롯 위주의 곡목 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노래교실을 트롯 전승 교육

가인... 노력의 결과 대단"... '전국노래자랑' 출신 가수들에 자부심>, 조선일보, 2020.

9.1. 등 참조.

68) <한국가요강사협회, '온라인 가요 배틀 한판' 개최>, 이투데이, 2020.6.10. 참조.

69) <경산시민회관, 노래교실 개강>, 경북신문, 2017.2.6., <고창군 흥덕면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개강>, 투데이안, 2013.3.13. 등 참조.

의 근거지로 제시하는 것은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또한 노래교실 강사들은 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강사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전승의 체계성을 구현하고 있다. 실기 외에도 트롯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육하고 전승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2019년에 개관한 전라남도 영암의 트로트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트롯을 주제로 전시와 공연 등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공교육 차원에서 트롯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국의 대중가요가 각급 음악교과서에 수록된지도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트롯의 수록 건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교과서 수록 초기인 2002년 교학사의 고교 음악 교과서에는 윤심덕의 <사의 찬미>,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등과 함께 <눈물 젖은 두만강>,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수록되면서 비교적 트롯이 중용되었다.⁷⁰⁾ 그러나 2020년 기준 대중가요가 수록된 중등 음악교과서 출판물 사례를 보면 전체 수록곡 243곡 가운데 트롯은 단 3곡에 그치고 있으며 비율로는 1.2%에 불과하여 수록된 장르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⁷¹⁾ 트롯이 배제되는 것에 반해 외국곡은 전체 수록곡 중 47.7%인 116곡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²⁾ 동시대 동격의 상업음악이었던 신민요가 일찍부터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데에 비해 트롯은 교과서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색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70) <‘발해를 꿈꾸며’ 등 고교 교과서에 수록>, 연합뉴스, 2002.3.26. 참조

71) 수록된 트롯 곡목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나성에 가면>, <굳세어라 금순아> 등이다.

72) 이상 중등 음악교과서 분석 내용은 이수민(2021) 31~42쪽 참조.

3.3.4. 레게와 트롯, 문화유산의 좌표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레게는 자메이카의 전통적 음악 유산보다도 1950년대 전후의 뉴올리언즈 리듬앤블루스라는 미국 유행가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은 음악이다. 그러나 레게의 음악적 뿌리가 미국의 리듬앤블루스에 있다고 못박은 올뮤직닷컴의 장르 소개에서도 첫 문장에서는 ‘자메이카 고유의 음악’⁷³⁾이라고 소개를 한다. 자메이카 땅에서 자메이카 사람들이 만들고 자메이카의 삶을 노래했으며 자메이카 사람들이 문화적 중심에서 세대를 이어 향유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신청서 상에서 레게의 장소는 뉴올리언즈가 아니라 킹스틴과 자메이카로 나타난다. 2012년에 등재된 한국의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등재 당시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가 유네스코 회의 현장에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 상의 다양한 공동체적 표상은 사실상 영화주제가 〈아리랑〉에 의탁한 것이었지만 장소성 항목 서술에서 굳이 서울 종로지역 혹은 단성사를 특정하지는 않았다.⁷⁴⁾ 역사적 기원이나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해 온 공동체의 관점에서 아리랑의 장소성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 세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트롯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는 그 중의 가장 오래된 작품이 처음 발생한 장소보다도 지금 그것을 향유

73) 번역은 필자.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ggae is a music unique to Jamiaca’, 올뮤직닷컴 (allmusic.com) ‘Reggae’ 항목에서 인용. 접속일 2021.10.25.

74) 신청서에는 장소성 항목에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지역이 특화된 음악이 장소로서가 아니라 그저 악곡으로서 가장 유명하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 문화재 제도의 맥락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 본문과 각주 모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내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소개 페이지(heritage.unesco.or.kr/6316-2) 참조. 접속일 2021.10.25.

하고 전승하는 공동체가 정주하는 장소에 의해서 더욱 잘 입증될 수 있다. 초기 트롯 음악이 근대 문물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도래했다고 하나 그와 함께 했던 일제강점기의 시간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그 이후 새롭게 정착한 트롯 명칭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문화로서 70여 년을 함께한 것이니 그것의 장소성을 한반도 바깥에서 찾는 것은 공동체성과 문화다양성을 중시하는 유네스코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레게가 그러했듯이 트롯의 장소성 역시 경성, 부산, 목포 등의 도시로부터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식민지와 해방 이후로도 장기간 이어진 억압적 권력 환경에서 레게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던 방법과 트롯이 수행한 수행했던 방법은 조금 달라 보인다. 레게가 적극적으로 하층민들의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목소리를 표출했다면 초기 트롯은 자기 연민으로 환원되는 슬픈 서정적 정조가 중심이었고 슬픔과 쓸쓸함, 동경과 그리움 등이 정서적 주조를 이루었다.⁷⁵⁾ 전후 트롯의 상징적 인물인 이미자를 엘레지⁷⁶⁾의 여왕이라고 불렀던 것 역시 트롯의 주된 경향을 잘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외양적 차이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에 형성된 음악-레게’와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음악-트롯’으로 원인을 소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외양과 무관하게 두 유행가 모두 결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공동체의 마음을 대변하고 위로하는 사회적 역할을 오래도록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75) 초기 트롯의 정조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트로트’ 항목, 장유정(2003) 11~25쪽, 이정아(2015) 223~227쪽 등 참조.

76) 서정시의 일종으로 애도와 비탄의 감정을 표현한 시 또는 슬픔을 노래한 악곡이나 가곡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엘레지’ 항목 참조.

한편,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의 레게는 다양한 문화의 혼성적 가치가 도드라지는 문화유산이다. 세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음악을 흡수하여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냈고 커다란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파생 장르들의 탄생을 이끌고 있다. 레게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트롯 역시 국내적 차원에서 레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의 혼성을 자극해 왔고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통해 표현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가치 혹은 영향력이 레게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자국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두 유행가가 품은 문화적 가치는 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레게와 트롯의 전승 환경 및 양상 또한 큰 틀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둘은 모두 전승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유산이어서 보유자 혹은 전승자의 지정이 불필요하다.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공동체 내부에서도 특별한 인물에게 책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세대를 건너 전승되는 데에 당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승을 담당하는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메이카가 공교육과 전문 학원을 중심으로 전승이 제도화 되어 있다면 한국은 방송과 노래교실 생태계를 통해 전승이 제도화되어 있다. 상호 유사성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양자 모두 전승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교육 측면에서는 한국의 트롯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공교육의 규모에 결코 뒤지지 않을 노래교실이 있어 전승에서의 한계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노래교실에서의 실천이 대체로 차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전승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에서 트롯의 유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차세대를 위한 전승 기회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승의 역사를 보자면 1960년대 자메이카에 나타난 레게보다는 1930년대 식

민지 조선에 나타난 트롯이 오히려 더욱 장구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레게가 유네스코 차원의 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반해 트롯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조차 전통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양자 간에 사뭇 차이가 느껴진다. 2015년 한국은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한 바 이는 신민요가 본격적으로 공식적 전통문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에 만일 음악 분야에서 추가적인 전통문화 제도화 대상을 찾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신민요와 여러모로 근접한 트롯 혹은 트롯 가운데 어떤 부문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유네스코 협약이라는 제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레게와 트롯은 그 자격에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둘다 식민지 경험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고 중요한 음악적 표현은 근대적 매체를 통해 흘러들어왔으며 10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생애주기를 공동체 외부의 음악적 자원에 의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적이고 일국적인 음악이 되어 각각의 국가공동체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유사 향토음악으로 자라났고 음악적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약의 정신이 추구하는 유산의 기준은 그리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의 동의와 기타 등재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등재될 수 있도록 한 것’⁷⁷⁾이기 때문이다.

7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등재정책 항목(heritage.unesco.or.kr/유산등재/등재정책)에서 인용. 이러한 등재정책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방향 설정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요건을 잘 갖추어 지역 소재 문화유산의 목록 등재를 중앙 혹은 해당 지자체 관리당국에 신청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등재될 수 있도록

4. 결론

지금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레게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트롯이 글로벌 시대 눈높이에 맞는 문화유산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트롯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제를 찾고 논의 구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논의의 틀로 인용하여 문화유산의 맥락, 글로벌한 맥락에서 트롯의 가치를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포용적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정신의 바탕 위에서 가늠해볼 때 100년 전통의 트롯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트롯을 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지금보다는 한걸음 전향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다소 거칠게나마 구성해 보았다.⁷⁸⁾

물론 ‘왜색’이라는 장애물을 불가역적으로 회피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본적 정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사적 거부감을 탈각시켜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윤리적, 인권적 맥락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권리를 수탈해온 제국 일본과 비윤리 반인권의 피해자로 남은 식민지 조선

지원하는 것이 협약 이행의 방향일 것이다.

78)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네스코 협약에 의한 등재 기준이라 해서 무오류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신청서의 구성만 살펴보더라도 그렇다. 전 세계 다양한 문화유산에 최적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평균값으로 가치를 수렴시켜 평가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획일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제도화에 뒤따르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의 역사 역시 정신적인 유산으로 남아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서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닐지라도 제국이 식민지에 강제했던 감각과 사고방식의 재현을 통해 윤리적인 불쾌함, 인권적인 모멸감 등이 자극된다면 그것은 협약이 제시한 바 인권 및 상호 존중과의 양립성 검토로 이어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세계유산 군함도를 둘러싸고 2021년 지금 이 순간까지 유네스코를 무대로 국제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바⁷⁹⁾, 유네스코 협약의 기본 정신을 트롯이든 무엇이든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전 세계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승인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트롯을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한 단계씩 포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마감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소 더디더라도 공동체의 포용력에 해결의 열쇠를 맡겨야 할 것이다.

79) <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왜곡' 결정문 만장일치 채택>, 경향신문, 2021.7.22., <Japan should redo Battleship Island exhibit to UNESCO's liking>, The Asahi Shimbun, 2021.7.27. 등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채리·김지현. 2020. 「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학회지 논문

- 고바야시다카유키. 2018.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 비교를 위한 기초적 관점」 『아시아문화연구』 제47호,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7-60.
- 권도희. 2014. 「근대기 상업민요와 대중음악」 『동양음악』 제36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67-223.
- 김용호. 2006. 「카리브 대중음악의 혼종성과 레게의 저항성에 대한 연원적 고찰」 『이베로아메리카』8(2),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147-166.
- 손민정. 2013. 「대중음악연구에 있어서 주체와 타자의 정치학 - 트로트 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美學·藝術學研究』 제39호, 한국미학예술학회: 41-68.
- 이영미. 2008. 「트로트 논쟁의 흐름과 쟁점」 『비평과 이론』 13권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33-68.
- 이정아. 2015. 「전통민요와 대중가요 노랫말 비교 연구 - 논 매는 소리와 어 사용, 도시형 트로트 노랫말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 『韓國詩歌研究』 제39호, 한국시가학회: 201-232
- 이준희. 2015. 「1940~50년대 ‘트로트’의 확장: 장조화의 도입과 변용」 『동양음악』 제38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75-94.
- 장유정. 2003. 「한국 트로트의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 1945년 이전 노래의 시적 자아의 정서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 제16호: 49-88.

장유정. 2008. 「한국 트로트 논쟁의 일고찰 - 이미지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0호: 47-72.

조일동. 2021. 「월경하는 대중음악 경험과 다층적 정체성 실천」 『대중음악』 제27호, 한국대중음악학회: 197-234.

J r mie Kroubo Dagnini, Avril-Aout 2018, “Kingston: A Societal Patchwork”, Etudes caribeennes 39-40, Online.

Paul Kauppila. 2006. “From Memphis to Kingston: An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 of Jamaican Sk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55(1/2): 75-91. Print.

3. 학위 논문

성낙원. 2018. 「자메이카 음악 분석 및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정숙. 2016. 「노래교실 참여 중 · 장년여성의 삶의 변화와 의미」.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민. 202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가창곡의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輪島裕介. 2011. 「戦後日本 〈大衆〉 音楽言説史序説」. 東京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신문 및 잡지 기사

김도현. <지금은 야구 시즌! 야구 응원가 특집>, IZM, 2015.5.

Ajay Kalia, “Music was better back then”, skynetandebert.com, 2015.4.22.

Jason Fine, “A Reggae King Rises Again”, Rollingstone, 2020.8.18.

Michael Garnice, “What is Mento Music?”, www.mentomusic.com, 2018.

“Shaping Freedom, Finding Unity - The Power Of Music Displayed In Early Mento”, 2013.8.11.

“The rise of reggae: How a uniquely Jamaican sound conquered the world”, Teach,
www.bbc.co.uk.

5. 기타 문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국역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운영 지침 (국역본)」

Jamaica. 2017. 「Nomination file No.01398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Republic of Korea. 2012. 「Nomination file No.00445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2」

Republic of Korea. 2013. 「Nomination file no.00881 for inscription in 2013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2018.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6. 인터넷 자료

주 자메이카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jm-ko/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멜론 <http://www.melon.com>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벅스뮤직 <http://www.bugs.co.kr>

빅카인즈 <http://www.bigkinds.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유산 사이트 <https://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이트 <https://ich.unesco.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llmusic www.allmusic.com

Jamaica Information Service <https://jis.gov.jm>

World of Meters <http://www.worldometers.info>

World Population Review <http://www.worldpopulationreview.co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rot and Reggae in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Kim, Byung O

(Jeonju University, Professor)

Trot, which has been represented by 'all sorts of human emotions' or 'persistent vitality', has been with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for a long time. Recently, studies examining the positive aspects of trot are appearing, but they are still not free from the tags of Japanese style and adult decadence. Even though its history has already exceeded 100 years, it is not treated as a unique culture of Korea. Recently, however, Jamaican reggae was list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ke trot, reggae is not only made by mixing musical language both of the ruler of the colonial era and the oppressed, but also has only about 50 years of history. Nevertheless, reggae is the pride of Jamaica and is accepted as a unique music culture, and its situation contrasts sharply with Korea's trot.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compare the values of reggae and trot based on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spirit of the UNESCO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pirit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applied to reggae can be applied to trot without discrimination. If discussions from new perspectives continue to emerge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ave trot from the existing exhaustive dispute over Japanese style and to open up productive discussions outside of the national view.

Key words :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ggae, trot, Japanese style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27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2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5일